

2. 大豆遺傳因子源의 粒重, 耐寒性 發芽勢와의 關係

(한국에너지연구소, 방사선농학실) 權臣漢, 元鍾樂,
李榮日, 崔龍鎬*

蒐集在來種 大豆 1238 系統을 對象으로 粒重, 耐寒性, 發芽勢의 分布와 이들의 相互關係를 種皮色으로서 黃色, 黑色, 褐色, 綠色種子 등으로 分類하여 調查하였다. 試驗方法으로서 耐寒性 檢定은 10℃에서 發芽力으로 發芽勢는, 圃場에서 發芽後 一定期間에 걸쳐 發芽程度를 調查하였다.

全体供試系統의 100 粒重의 平均은 13.7 gr 있고 最高 42 gr 에서 最低 8 gr까지 分布되어 있으며 小粒種과 大粒種으로 区分되는 2重曲線을 보였다. 黃色과 綠色 種皮色系統들은 小粒과 大粒種으로 区分될수 있었고 褐色과 黑色 種皮色系統들은 大粒種이 많았다.

全体 供試系統들의 粒重과 發芽勢와는 正相關이 있었다.

耐寒性程度를 種皮色別로 볼때 黑色과 褐色種皮色系統에서 耐寒性系統이 많았다. 粒重, 耐寒性, 發芽勢와의 關係를 種皮色別로 볼때 黑色, 黃色種皮色種子에서 粒重과 發芽勢, 發芽勢와 耐寒性과는 正相關을 보였다.